

# ‘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 개최

### 9월 30일까지 전주시민 대상 독서문화 확산 위해 진행

국가대표 책 읽는 도시인 전주시가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오는 9월 30일까지 7개월간 초등학생 이상의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제9회 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독서마라톤 대회는 시민들에게 책 읽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 책 읽는 문화를 형성시키기 위한 독서운동으로, 독서활동을 마라톤에 비유해 책 1쪽당 마라톤 1m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독서마라톤 코스는 개인전의 경우 △3km(3000쪽) △5km(5000쪽) △10km(1만쪽) △20km(하프코스, 2만쪽) △30km(도서관도시, 3만쪽) △42.195km(풀코스, 4만2195쪽)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도서관도시 코스인 30km가 신설됐다.

또한 5인 이상의 단체 및 독서동아리의 경우는 42.195km(풀코스 4만2195쪽) 코스에 참여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독서마라톤 홈페이지(lib.jeonju.go.kr/marathon)의 일지에 독서 분량에 따라 도서명, 저자, 출판사, 읽은 쪽수, 독서 감상평(50자 이상) 등 5가지 항목을 기록하면 된다.

시는 독서마라톤 완주자를 대상으로 △완주증 제공 △차년도 대출권수 2배 확대 △2020 전주독서대전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풀코스 완주자에 한해 메달 증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독서마라톤 홈페이지의 ‘독후감공유하기’ 코너에 등록된 독후감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자에 대한 상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장미경 전주시 덕진도서관장은 “범시민 독서운동인 독서마라톤 대회를 전개해 책 읽기 좋은 도서관 도시에 걸맞은 독서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완주를 통해 성취감을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9회 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



전주시립도서관은 오는 9월 30일까지 7개월간 초등학생 이상의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제9회 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를 진행한다.

회 홈페이지(lib.jeonju.go.kr/marathon)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덕진도서관 책임

은도시팀(063-281-65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기존 한옥마을 중심부 공예품전시관 노외주차장 부지를 ‘오목대 전통정원’으로 조성했다.

## 전주시, ‘오목대 전통정원’ 조성

### 한옥마을 중심부 공예품전시관 노외주차장 부지

전주한옥마을 내 노외주차장이 한옥마을만의 고유한 정서와 정체성이 담긴 아름다운 전통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기존 한옥마을 중심부 공예품전시관 노외주차장 부지 1395㎡(422평)를 ‘오목대 전통정원’으로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오목대 전통정원은 야외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한류마당과 전주의 전통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투영연못으로 단아하게 꾸며졌다. 바닥은 전통방식의 장대석 포장으로 조성했으며 꽃나무 가지를 휘어서 병풍 모양으로 만든 ‘취병’과 마을 어귀나 다리 등에 세우는 수호신인 사람 형상의 ‘박수’도 설치돼 전통의 멋을 더했다.

홍 등 나무 723주와 능소화·은사초 등 9100본의 꽃을 식재해 전통정원의 품격을 더욱 높였다.

시는 전통정원 조성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비어있는 공간이 주는 고즈넉함과 함께 한옥마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오목대 전통정원이 조성되어 국가대표 관광명소인 한옥마을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소통과 다양한 활동,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공연, 프리마켓 등이 일상이 되는 체류형 관광지로 저변을 확대해 한옥마을 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핵심공간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완산구청,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 위해 특별 정비 나서

### 노점허용구역 일제 점검·도로변 물품적치 등 집중 단속

전주시 완산구청이 봄을 맞아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지도·단속 3개반(10명)을 구성해 특별 정비에 나섰다.

단속반은 완산구 내 노점허용구역 일제 점검을 통해 이행사항 준수 여부

를 확인하고 불법 노점행위, 도로변 물품적치 및 차량 노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는 차량 노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노

점상 허용구역에서 허용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도로에 상품을 진열해 시민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이를 즉시 정비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적치물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은 “특별단속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차량 통행이 제공되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로 정비 단속 관계자들에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상 물품적치, 노점행위 등에 관한 제반 문의사항이나 의견 제시는 전주시 완산구청 경제교통과(063-220-5529)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완산구,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사전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는 2일부터 4일까지(3일간) 관내 유동인구가 많고 시설규모가 큰 다중이용시설 70여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사전점검은 현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으로 초·중·고 및 대학교의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PC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감염병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자 실시된 지도·점검으로써, 업소 내 손 소독제 및 살

균제 비치 여부, 근무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을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예방행동수칙 유인물과 포스터 등을 배부해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전점검을 총괄한 가족청소년 과장(배정희)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의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에 만



전주시 완산구는 2일부터 4일까지 관내 유동인구가 많고 시설규모가 큰 다중이용시설 70여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전을 기하는 것이다. 우리 구에서도 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 전주시, 7월부터 모국어 상담·의료·법률·체류지원 등 제공

전주시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고통을 당한 이주여성들에게 신속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여성가족부 주관 ‘2020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설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등 2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오는 7월부터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 어려운 상황을 겪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한국어와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 상담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의료·법률·체류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소 운영은 (사)아시아이주여성 센터가 맡게 되며, 향후 장소 확보 및 상담사 8명 채용(이주여성 4명 포함)

를 거쳐 상담소 운영에 나서게 된다.

시는 향후 상담소가 본격 가동되면 이주여성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종사자의 역량강화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도 도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통해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도와 나갈 것”이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이주여성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